



안희성
(주)경농 상무이사

농약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1989년 이후 17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 소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도시소비자는 물론 일부 농업인 및 작물보호관련 종사자조차도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더 확대되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1989년 7월 골프장 농약사건 보도 이후 많은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이 앞 다투어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보도하여 왔지만 정작 알려주어야 할 농약사용에 대한 필요성 및 역할 등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농업인 및 소비자 계도에는 많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농약에

농약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여전, '합리적 시각' 아쉬워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농약에 대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해 이해가 부족했던 도시민들에게 농약에 대한 무지의 공포를 지니게 해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Rating system을 도입, 농약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함으로써 문제가 된 많은 농약이 퇴출되었음은 물론 등록제 도입 이후 고독성농약의 신규 등록 및 적용확대 금지 등 문제농약은 그야말로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유익성과 유해성이 공존하고 있다. 농약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유익성과 유해성이 공존하는 농업자재이며 유익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규정한 각종 시험을 통과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된 정밀화학 제품이다. 자동차도 도로여건에 따라 각각의 속도 제한이 있고 이를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운전자와 승객에 알려주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계도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 결국 자동차를 타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농약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이다.

이와 같이 향후 대중 홍보매체에서도 농산물 생산에 필수자재인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농약에 대한 이들 매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및 소비자의 안전식탁을 책임질 수 있는 보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계에 근무하는 모든 이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전사용 · 소비자 인식 제고’ 매진

이제 세계무역 자유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정부는 교역상대국들과 FT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종사자들이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이에 정부나 관련업계에서도 이같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사는 병해충 및 잡초와의 끊임없는 전쟁이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농사는 힘들고 고달프며 투하노동에 비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다. 농업인도 편하게 농사지며 도시민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소득으로 행복한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부모형제들이 뜨거

운 피약별 아래를 누비게 하는 고통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농약은 농업인이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벗어나게 함은 물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게 하고 힘든 농사에서 편한 농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주체이다. 이러한 농약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근거 없이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로만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등록하는 농약은 거의 대부분이 보통독성 이하의 저약량, 고효율의 농약이며 인축에 안전한 농약만 등록, 판매 할 수 있다. 혹 문제가 있는 농약은 정부의 각종 사용 규제로 그 수가 해마다 감소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농업인들은 보다 편하고 보다 나은 소득을 담보하기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농약의 불신을 초래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약안전사용이다. 물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의 적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계몽과 함께 도심지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종사자 모두의 합심된 배전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Y